KCC, 중국 곤산공장 순항중…

PCM강판 품질우수 … 세계 도료기업의 중국시장 선점 치열

KCC(대표 고주석)가 중국 진출을 위해 2000년 6월 설립한 금강화공 유한공사(KCK)가 중국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KCK는 중방식 도료를 기준으로 월 100만리터, 공업용 도료는 월 70만리터의 생산능력을 지녔으며 주요 생산품목은 PCM도료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재 수요국으로 연 7%에 이르는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2007년 베이징 올림픽과 같은 특수로 중국의 철강 수요는 매우 낙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는 KCC를 비롯한 Nippon Paint, 전화페인트가 중국 전체 PCM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이바, 악조노벨, 만가도료 등이 새로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불소 PCM은 PPG, 악조노벨, Valsper 등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KCK의 PCM 도료 품질은 중국 최대의 철강기업인 보산강철에서 PCM 강판의 품질 목표로 선정할 정도로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며, KCK는 앞으로도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계속 출시해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KCK의 2003년 최대 목표는 중국의 PCM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해 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공략해 다른 경쟁기업들보다 선두 자리를 점유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안정된 품질로 고객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특수 기능을 부가한 제품 성능의 차별화 전략을 펼쳐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황현혜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23>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